

UNIVERSIADE GWANGJU 2015 하계 U대회 실사 한달 앞으로

'감동 실사' 시민 열기에 달렸다

2015 걷기운동 등 붐 조성 '준비된 광주' 알리기 총력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현지 실사가 6일로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기사 3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은 4월 6~9일 3박4일간 2015년 U대회 개최지 선정 현지 실사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현지 실사는 78일 앞으로 다가온 개최지 결정을 위한 FISU총회(5월23일)에 앞서 광주시민들의 유치열기와 개최의지, 역량 등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광주시는 '감동 실사'를 보여주기 위한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사단 무엇을 보나=2015 하계 U대회 개최지 후보 도시 실사는 이달 13일(한국시간 14일) 최종 유치신청서가 접수돼야 할 수 있지만 광주는 현재 대만에 이어 2번째로 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사 일정이 가장 먼저 확정된 곳은 광주로 나머지 5개국 7개 도시의 일정은 현재까지 미정이다.

광주에 올 실사단은 스페인 버그(스웨덴)를 단장을 비롯해 케말 타머(터키), 말롬베트 라레스(남아공), 히사토 이가라시(일본), 루시아노 카브라(브라질)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크리스티안 피델(FISU사무국 미디어 담당관)을 포함해 6명이다. 브라질의

루시아노 카브라를 제외하면 나머지 실사위원은 지난 2013년 대회 실사에 참여한 '지광파'(知光派) 인사여서 광주 실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은 U대회 개최를 위한 환경, 스포츠 인프라 등 제반 여건과 개최역량, 시민들의 개최열기를 평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광주시가 FISU측에 제출한 18개 부문이다. 실사단은 광주시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스포츠·숙박 시설 ▲의료서비스·대회 안전 ▲교통 인프라 ▲스포츠 조직과 경험 등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시민들의 유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하는 것이 실사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시민들의 환영분위기와 대회 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태세가 2015 하계U대회 개최권 확보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비 어떻게=시는 실사를 앞두고 최종만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FISU실사 대비 준비단'을 구성, 차질 없는 실사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단은 유관 실·국장을 반장으로 의전지원반, 언론대책반, 환경지원반, 교통지원반, 체육지원반으로 구성돼 있다.

준비단은 실사단계에 유치열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준비된 도시 광주'를 각인하기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다.

2015 광주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도 오는 10일부터 ▲희망 2015리본달기 ▲범시민 2015 건강걷기 대회 ▲시민 매일 2015년 걷기 운동 ▲사이버 2015 홍보사절단 운영 등을 통해 본격 유치 붐 조성에 나선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봄비속 휘날려진 능수버들 경칩(驚蟄)인 5일 촉촉하게 내린 봄비로 휘날려진 전남대학교 캠퍼스 용지(龍池)의 능수버들이 주변을 걷는 여심과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업 보조금 전면 개편 전남 영세농가 직격탄

장태평 장관 "단순 지원 탈피 생산성 위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각종 농업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해 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 대상이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별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금의 폐지 또는 축소가 불가피해 영세한 전남지역 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말까지 보조금 제도를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농업 지원제도가 그동안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하는 보조 제도들로 돼 있는데 이를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

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보조금 전체 규모에 대한 감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각종 보조금을 폐지·축소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 뉴질랜드의 농업 개혁을 거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아직 개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수리시설 건설·보수, 농지정리, 농로 개설 등 농업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지원되는 SOC 보조금보다는 개별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영세한 전남지역 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돼 지역 농민들의 피해와 함께 반

발이 예상된다. 특히 전체 19만 가구에 이르는 전남지역 농가 중 평균 경지면적 1.5ha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농가가 37%에 달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축소·폐지는 전남지역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남도가 농가에 지급한 보조금은 ▲쌀 소득보전직불금 1천440억원 ▲농기계 지원금 143억원 ▲비료 구입비 지원 45억9천만원 ▲농어업 경영체 컨설팅 지원금 15억8천800만원 등 총 240개 부문 7천140억원에 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의 경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지역 영세 농가들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공동주택 공시가 첫 하락

광주 0.8%↓-전남은 3.2%↑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4.5% 하락했다. 반면, 전남지역의 경우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의 개발 호재로 3.2% 상승했다. 광주지역은 0.8% 하락했다.

국토해양부가 5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 전국 공동주택 967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하락은 처음이다. 공시가격은 지난 2006년에는 전년 대비 16.4%, 2007년 22.7%나 올랐으며 작년(2.4%)에도 소폭 상승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934만 가구)보다 33만 가구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7.4%), 서울시(-6.1%), 대구시(-5.7%)의 하락 폭이 큰 반면 인천시(5.7%), 전북(4.3%), 전남(3.2%) 등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억 초과~3억 이하 아파트는 4.7% 떨어진 반면 1억 초과~2억 이하의 경우는 1.3% 올랐다.

국토해양부는 6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형으로, 작년보다 2.1% 떨어진 49억3천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4㎡형이 42억8천8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눔의 봄 '활짝'

광주서 장기기증 캠페인

7일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광장과 서울 명동성당 앞, 그리고 부산 서면 광장에서 동시에 대규모의 장기기증 캠페인이 진행됐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한 가톨릭계 장기기증 모집기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5일 "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광주, 서울, 부산에서 범국민 장기기증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뿐 아니라 불교계의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참여하는 범종교 행사로 기획됐다. 이와 함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안구기증협회 등 10여 개 장기기증 모집기관이 행사에 동참한다.
/채희중기자 chae@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한울정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

아모레퍼시픽

한울정 아모레퍼시픽의 피부 케어 제품들을 소개하고,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를 강조하는 광고입니다.